

10월19일(월)/누가복음 17:5-6

제목: 믿음 앞에서 약해지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뿔나무 뿌리가 뿔혀서 바다로 던져지라 명해도 그대로 된다고 하셨다.(6절) 이 비유의 핵심은 문자적으로 나무의 뿌리가 통째로 뽑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비유의 밑바탕에는 당시 유대인들의 언어습관이 깔려있다. 그들은 항상 과장된 표현을 쓰는 습관이 있었다. 예수님도 이 표현법을 즐겨 사용하셨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자기를 범 죄케 한 눈과 손은 제거하라 하셨다(마5:29-30) 만약 이 명령을 문자적으로 실천한다면 모든 성도는 다 불구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어떤 강조를 하실 때 과장법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다. 이 말씀은 죄에 대하여 그만큼 단호하라는 말씀이지 실지로 눈과 손을 제거하라는 뜻이 아니다. 이 겨자씨 비유도 같은 맥락이다. 뿔나무 뿌리가 통째로 뽑히라고 명하면 그것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다. 이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겨자씨 만한 믿음이라도 소유하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그것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앞에 한없이 자비로워지심을 말하는 것이다.

10월20일(화)/누가복음 17:7-10

제목: 봉사자의 수칙

종은 주인의 식사를 위해 시중을 들어야 하고 주인의 식사가 끝나야 식사할 수 있다.(8절) 그리고 주인은 종이 식사시중을 충실히 들었다고 해서 그에게 상을 주지는 않는다.(9절) 종은 주인의 명령이 마땅히 자기의 의무라 생각하고 일한다.(10절) 이것은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도 해당된다. 교회 일은 하나님께 어떤 이(利)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감사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일꾼은 은혜를 조건으로 봉사해서는 안된다. 일꾼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요구도 내세울 수 없다. 그는 교회에서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해도 그것은 그가 해야 할 의무일 뿐이다. 물론 장차 일한 대가는 주어지지만 일꾼은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봉사해야 한다. 사실 온 우주가 우리 것이 된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왜냐하면 본래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주를 몇 천개, 몇 만개씩 소유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물질과 돈으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오직 우리의 정성과 땀과 감사와 봉사 뿐이다.

10월21일(수)/누가복음 17:11-19

제목: 지역감정을 극복하는 법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의 한 마을에 계셨고(11절) 그곳에 열 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다.(12절) 본래 유대와 사마리아는 서로에 대해서 굉장한 지역감정이 있는 곳이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들 중에는 이 두 지역 출신이 섞여 있었다.(17-18절) 그런데 그들은 서로 싸우거나 지역 감정 같은 것이 없었다. 이유는 그들에게 공통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13절) 그들은 문둥병이라는 공통의 비극 속에서 서로를 의지할 뿐 싸우지 않았다. 사람을 하나로 묶는 힘은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이다. 교회 안에는 배운 자, 못 배운 자, 가진 자, 못 가진 자 등 다양한 부류와 계층의 사람들이 있다. 이런 점 때문에 교회는 다양한 목소리 주장들이 제기되어 항상 시끄러울 가능성이 많다. 교회란 곳은 바깥 사회 어떤 집단 보다 더 분열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교회에 공통의 목표가 생겨서 다 같이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교회가 계속 시끄럽고 계속 분열한다면 그것은 공동의 목표가 없는 까닭이다. 공동의 목표는 항상 교회의 지도자가 만들어주어야 한다.

10월22일(목)/누가복음 17:20-21

제목: 하나님 나라가 어디인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물었을 때(20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 안’에 이미 있다고 하셨다.(21절)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사람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사이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뜻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차적인 뜻은 공간적인 개념인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한 모든 곳은 하나님 나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그의 통치를 받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공장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어디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성도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교육하는 일은 하나님의 통치를 그곳에 내려오도록 하는 행위이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말은 피안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이며 현실적인 개념이다.

10월23일(금)/누가복음17:22-24

제목: 역사의 마지막 때 임할 인자의 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의 날 하루’는 자신이 재림하는 날을 가리킨다. 그는 이 재림하는 날을 현재의 사람들이 볼 수 없을 것임을 말씀하셨다.(22절) 재림은 먼 훗날에 있을 일이니 예수 당대의 사람이 당연히 볼 수 없다. 그러면 ‘인자’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인자를 사람인(人)자에 아들 자(子)자로 표기한다고 해서 ‘사람의 아들’이라 해석하면 안된다. 여기서 인자는 구약의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두고 있다. 다니엘서에는 이 세상 종말 때 지상으로 내려오는 심판주를 인자로 묘사하였다(단 7:13) 예수님은 종말 때 심판주로 올 다니엘서의 ‘인자’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암시하셨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 저쪽에서 번쩍 거리듯이 인자가 임한다(24절)는 표현은 예수님의 재림의 양상을 보여주는 말이다. 종말 때 ‘하늘 아래’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재림주를 볼 수 있을 것임을 암시하고 ‘이쪽에서 번쩍, 저쪽에서 번쩍’ 한다는 말은 매우 급작스럽고 순식간에 재림이 이루어 질 것을 암시하는 말이다. 재림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그리고 갑자기 임한다.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